

Global ETF Insight

2019년 글로벌 ETF 펀드플로우 동향 분석

뮤추얼펀드 시장 위축되는 반면 ETF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 중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년 미국증시의 경우 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뮤추얼펀드로부터는 \$69bn의 자산이 순유출되었다. 반면 ETF에는 \$337bn의 자산이 순유입되어 대조를 보였다. 투자자들의 ETF와 뮤추얼펀드에 대한 상반된 태도는 이미 수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2014년을 기점으로 투자자들은 뮤추얼펀드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액티브 대비 패시브전략의 지속적인 퍼포먼스 우위에 따른 결과이다.

금년 ETF 펀드플로우에서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채권형 ETF 위주로 자산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주식형 ETF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 해 4분기 이후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금년 커뮤니케이션, 리츠, 필수소비재 업종 중심으로 큰 폭의 자산유입

ETF시장에 전반적으로 자산이 유입되고 있지만 섹터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황은 다소 달라진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리츠,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ETF에 큰 폭의 자산이 유입된 반면 에너지, 금융, 산업재 ETF에서는 자산순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설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표적 기술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업종이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업종인 만큼 금년에도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졌다. 리츠 ETF는 저금리의 수혜로 부동산시장이 금년 활황을 보이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대표적 경기방어업종인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에 대한 자산유입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둔화와 금리하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금융업종으로부터의 자산유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0월을 기점으로 변화의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필수소비재 업종에서는 자산유출이, 금융업종에서는 자산유입이 관찰되는 중이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반도체, 기술주 ETF들 우수, 에너지 ETF는 부진

개별 ETF들의 금년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 부동산, 항공방위주 ETF가 집중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 반도체 ETF인 SMH와 SOXX는 나란히 50% 이상의 누적수익률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 XLK, QTEC, FTEC 등 기술주 ETF들도 30% 이상의 뛰어난 수익을 기록했으며 주택건설기업 ETF인 ITB의 금년 수익률은 47.0%에 이른다. 반면 에너지탐사기업 ETF XOP는 금년 12.7% 손실을 기록해 가장 부진한 성과를 얻은 종목이 되었다. 유가약세 속에 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TF Insight

글로벌 ETF



대체투자/자산배분 김훈걸
02-3771-7528
Kim.hg@hanafn.com

RA 김중훈
02-3771-3112
joonghun@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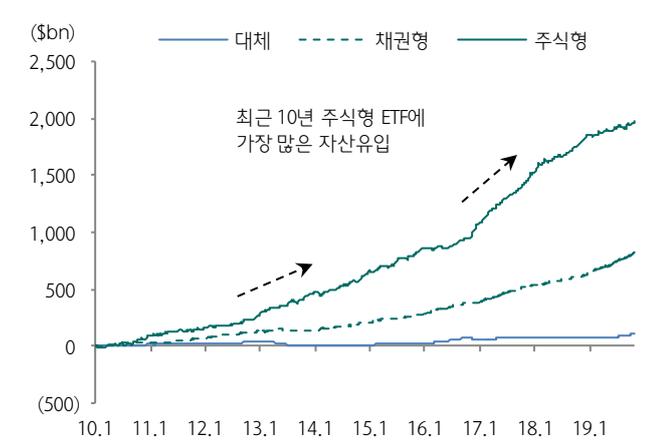
금년 금리하락에 따라 ETF 시장 채권형 ETF 중심으로 성장

지난 수 년간 글로벌 ETF시장 빠른 속도로 성장. 주로 주식형 ETF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금년에는 채권형 ETF에 많은 자산유입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ETF의 빠른 성장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투자자들은 2014년을 기점으로 뮤추얼펀드를 이탈하기 시작했지만 ETF에 대한 자산유입은 그 이후 더욱 강해지고 있다. ETF 시장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증시의 추세적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액티브 대비 패시브의 비교우위가 확고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효율적인 시장에서 초과수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대부분 성과 없이 끝나게 되고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가 아닌 패시브펀드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낮은 비용, 편리한 거래 등 ETF가 그 자체로 가지는 강점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딱히 우월하지도 않으면서도 비용은 비싸고 설정, 환매 과정이 복잡한 뮤추얼펀드의 인기가 하락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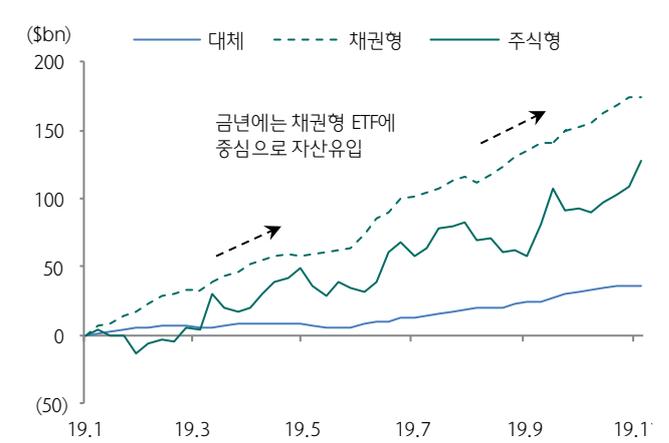
금년 역시 ETF시장에 대한 자산유입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금년은 유독 채권형 ETF에 대한 자산유입 강도가 강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주식형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과거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년의 경우 경기둔화 우려와 시장금리 하락이 채권의 가치를 빠르게 상승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 2010년 이후 ETF 자산 별 누적 펀드플로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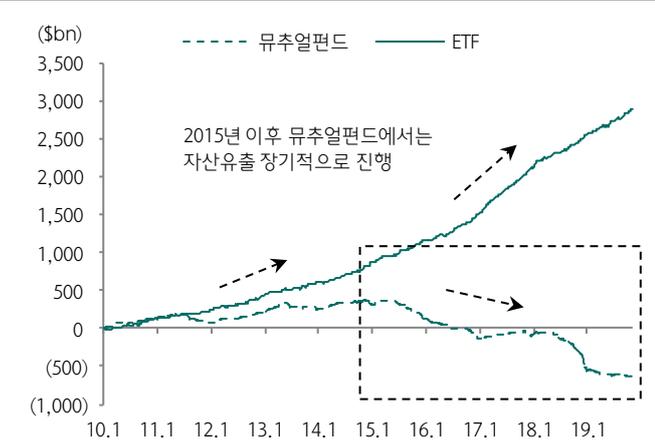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2. 2019년 ETF 자산 별 펀드플로우, 채권형에 가장 많은 자산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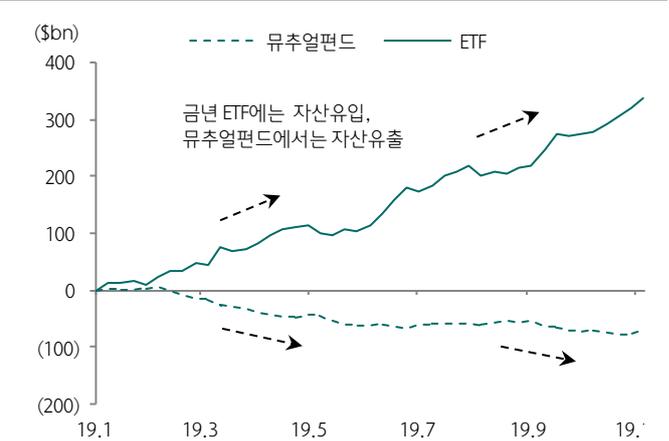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3. 뮤추얼펀드에서는 2015년 이후 자산유출 지속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4. 금년 역시 ETF에는 자산유입, 뮤추얼펀드에서는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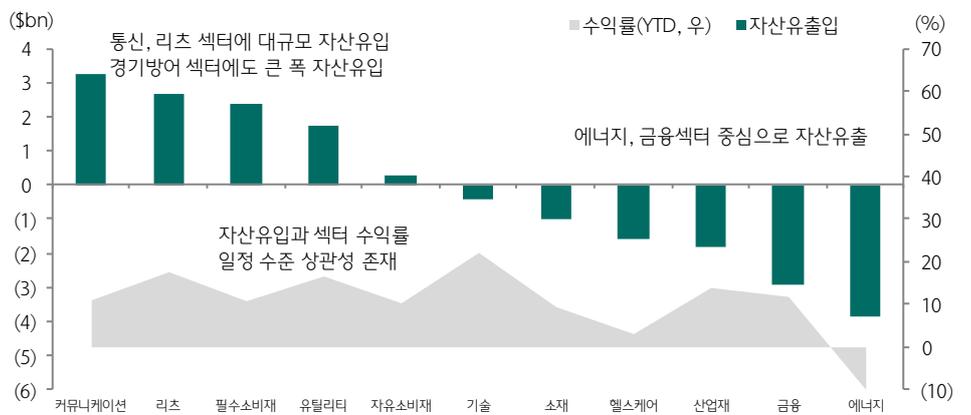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금년 금리하락과 경기우려로 리츠, 경기 방어섹터 중심으로 자산유입.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 높아지며 금융업종에 자산유입 시작

금년 커뮤니케이션, 리츠 등에 많은 자산유입, 최근 금융업종에 자산유입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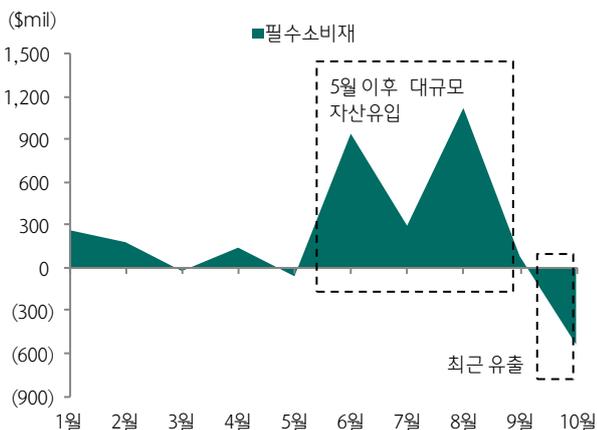
금년 미국 상장 ETF에 꾸준히 자산이 유입되고 있지만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상황이 다르다. 큰 폭의 자산유입이 발생한 섹터도 있지만 꾸준히 자산이 유출된 섹터도 동시에 존재한다. 금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리츠,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섹터 등이다. 지난 해 신설된 섹터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는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인 만큼 금년 역시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저금리 국면의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리츠에도 많은 자산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섹터이다. 금년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며 이들 업종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산유출이 많았던 업종은 에너지와 금융이다. 에너지는 셰일혁명 이후 지난 수년간 꾸준히 위축되는 업종이다. 금융업종의 자산유출은 금리하락이 부정적 환경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10월 이후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그림6>, <그림7>에서 보듯이 최근 필수소비재업종에서는 자산유출이, 금융업종에는 자산유입이 관찰되고 있다. 금리인하와 미중 대립완화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석된다.

그림 5. 2019년 ETF 각 섹터별 자산유출입 규모. 커뮤니케이션, 리츠에 유입, 금융, 에너지에서는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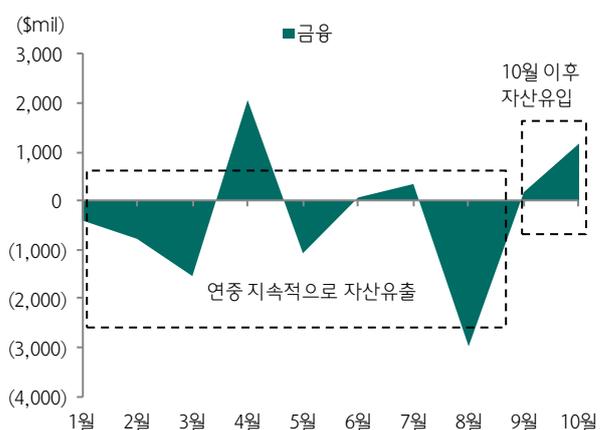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6. 필수소비재 업종에 5~8월 대규모 유입, 10월 이후 유출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7. 금융 섹터 ETF에는 10월 금리 반등 이후 자산유입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반도체, 인터넷 등 기술주 중심으로 금년 큰 폭의 수익발생. 부동산, 항공방위 ETF 역시 높은 수익

기술주, 부동산, 항공방위 ETF 중심으로 금년 높은 수익률 달성

금년 개별 ETF들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수익률 상위에는 기술주, 항공방위, 부동산 관련 ETF들이 집중되어 있다. AUM \$1bn 이상 ETF 402개 중 10월 중순까지 누적수익률 1위를 기록한 종목은 반도체 ETF SMH이다. SMH의 해당 기간 수익률은 52.3%에 이른다. 역시 대표적 반도체 ETF인 SOXX도 51.3%로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외에 XLK, QTEC, FTEC 등 주요 기술주 ETF들이 40% 내외의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금년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활황 속에 주택건설기업 ETF인 ITB도 47.0%의 높은 수익을 얻었다.

반대로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종목은 에너지 탐사기업 ETF인 XOP이다. 금년 유가하락에 따라 에너지 섹터의 수익성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중이다. 이어서 인도 주식 ETF EPI가 1.0% 상승에 그쳤다. 나머지는 현금과 유사한 단기채로서 부진한 수익률이라고 판단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다.

표 1. 2019년 수익률 상위 10개 ETF (AUM \$1bn 이상)

code	기초자산	AUM(\$bn)	보수율(%)	분배금(%)	유입자산(\$mil, YTD)	수익률(%, YTD)
SMH	반도체	1.42	0.35	1.23	278.42	52.3
SOXX	반도체	2.11	0.46	1.11	446.89	51.3
ITB	주택건설기업	1.25	0.42	0.50	- 10.99	47.0
XLK	기술주	24.68	0.13	1.21	471.82	38.5
PPA	항공방위주	1.09	0.59	0.95	32.83	38.3
QTEC	기술주	2.54	0.57	0.71	- 101.82	37.9
FTEC	기술주	2.77	0.08	1.10	276.98	37.9
VGT	기술주	22.71	0.10	2.02	- 636.93	37.6
IXN	기술주	3.04	0.46	0.97	57.44	37.1
XAR	항공방위주	1.73	0.35	0.77	200.02	36.7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2. 2019년 수익률 하위 10개 ETF (AUM \$1bn 이상)

code	기초자산	AUM(\$bn)	보수율(%)	분배금(%)	유입자산(\$mil, YTD)	수익률(%, YTD)
XOP	에너지 탐사기업	1.93	0.35	1.41	- 256.20	- 12.7
EPI	인도 주식	1.09	0.85	1.15	- 331.38	1.0
USFR	변동금리채	1.74	0.15	1.90	568.74	1.8
BIL	단기채	8.40	0.14	1.65	- 270.86	1.8
GBIL	단기채	3.32	0.12	2.02	372.76	2.1
SHV	단기채	21.58	0.15	2.03	848.01	2.1
FTSM	단기채	5.00	0.40	-	919.01	2.5
SUB	단기채	2.56	0.07	1.54	487.88	2.5
ICSH	단기채	2.27	0.08	-	1,385.14	2.8
MINT	단기채	13.10	0.36	-	940.70	2.9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